

## 10월 기획특강 취지

### 「Re-spect 노동자의 삶, 늙음, 죽음」

- 2016년 저서 「할배의 탄생」 으로 우리사회의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최현숙’ 작가가 10월 기획특강의 강사로 찾아옵니다.
- 인류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노동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늙음과 죽음은 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두려움’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각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넘어서는 다른 사유는 가능할까요?
- ‘최현숙’ 작가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노동과정 속에서 만난 노인들의 삶을 ‘구술생애사’ 연구로 기록하였고, 늙음과 죽음의 의미를 재사유하여 수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상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쓴 기록물로서의 저작 「작별일기」를 통해 ‘노인이 늙고 죽어가는 과정을 밀착하여 이를 보다 냉정하고 구조적으로 들여다 보았고, 우리 사회가 늙고 죽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요양보호사로 오랜 시간 노동한 작가의 경험의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 본 10월 기획특강을 통해 작가의 노동경험 과정을 듣고, 한 인간의 생애와 역사를 밀도 있게 관찰하고 인터뷰한 「할배의 탄생」, 「작별일기」 등의 기록물들을 함께 나누며 ‘구술생애사’ 기록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늙음과 죽음에 관해 재사유하면서 이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